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Heavy Industries wins Petrobras FPSO hull prize

현대중공업이 브라질의 Petrobras로부터 P-78 FPSO의 하부선체(hull)과 거주구역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FPSO 전체 공사 규모는 23억 달러이며 현대중공업은 85,000톤 규모의 hull과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구역을 건조하는 EPC공사를 수행한다고 보도됨. 인도기 한은 2024년까지라고 보도됨. (Upstream)

Lockdowns and oxygen shortages cannot stop scrap tanker prices surging

노후 선박들이 ldt당 550달러의 전례없는 가격으로 폐선되고 있다고 보도됨. 폐선소들이 밀집된 인도 및 기타 국가 등에서, COVID-19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등이 폐선 활동을 방해하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철에 대한 재활용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두산인프라코어, 배터리팩 사업 '속도'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팩 시제품 1호기를 제작 완료했다고 밝힘. 이번 시제품으로 실제 장비 탑재 테스트를 거쳐, 내년초에는 배터리팩을 탑재한 1.7톤급 전기 굴착기 초도품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배터리팩 사업은 2030년 연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북극 쇄빙 선대 확충

러시아가 북극지역의 쇄빙 선대를 대폭 확충한다고 보도됨. 현재 원자력 쇄빙선 5척을 운용하고 있는 Rosatom은 2030년까지 최소 3척의 초강력 원자력 쇄빙선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상위 10대 조선 그룹, 글로벌 오더북 80% 차지

전 세계 상위 10대 조선 그룹이 현 글로벌 오더북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 중 40%는 2021년 내 인도될 선박이라고 보도됨. 현재 진행 중인 통폐합 작업이 끝나면 100개 이상의 하위급 조선소들이 퇴출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현재 글로벌 조선 설비는 5,700만CGT이나 133개 조선소들의 설비는 글로벌 설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중고 컨테이너선 시세 천정부지

2021년 1분기 중고 컨테이너선 거래량은 Clarksons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분기별 기록으로는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중고선 가격은 2012년 7월 이후 최고 시세라고 보도됨. 선령 10년의 4,400TEU급 컨테이너선 가격이 한 달만에 +40%오르며 3,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